

# 무주군, 일상회복추진단 운영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보고회 갖고 분야별 시책추진 내용 점검

무주군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앞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일상회복추진단은 총괄지원반, 민생경제, 농업분야, 문화관광, 안전재난, 방역의료 등 5개 분야 25명이 참여하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라 일상회복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2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시책추진 내용 등을 점검했다.

부서별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 시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생활방역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맞춘 위드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부서별 시책 내용을 보면 기획실 '힐링 무주', '안심·안전 무주 관광' 홍보, 사회복지과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안전재난과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보건행정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대책,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무주군은 2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시책추진 내용 등을 점검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대책, 환경위생과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환경개선 정착 조성 등 시책을 발표, 일상회복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원활한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마련, 관광분야 단계적 회복,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군민들에게 위드 코로나 상황에 걸 맞는 방역수칙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내 곳곳에 군민의 참여를 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을 걸었다.

현재 군은 지난 25일 기준 전체 접종 대상자 대비 2차 접종률이 77.3%이며, 10월말에는 접종완료자 80% 목표를 세우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희옥 부군수는 "군민들이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앞두고, 군차원의 방역관리 등에 총력을 쏟아가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빈틈없고 꼼꼼하게 준비해 일상회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영수 장수군수 "불법 선거 현수막 철거·환경보호 앞장"

### 내년 지방선거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들, 협약식 가져

장수군은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정치인 불법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27일 JTJ 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JTJ 전주방송에서 개최된 협약식에 적극 동참하며 강력하게 추진했다.

협약식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만 달겠다는 202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 5명인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 송만섭 민주당 전북도당부위원장, 양성빈 전 전북도 의원, 최훈식 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

막 게시 금지,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장영수 군수는 "선거철이 되면 불법 현수막으로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JTJ 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장수 군수로서 현수막 사용 자제를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청소년수련관, 전북도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지난 23일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하고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라북도대표청소년어울림마당을 이태석홀에서 열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소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며, 어울림마당은 순수 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소풍

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어울림마당은 다양한 체험활동 및 동아리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귀농인·주민 힘 모아 마을 활력

### 진안 정천면 '건달농부', 공동 특화작목 육성·지역 특화축제 등 개최

진안군의 한 산골마을에 정착한 귀농인들이 원주민과 힘을 모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건강한 산촌생활을 꿈꾸며 진안군 정천면에 귀농한 김진주(54세 함가동마을), 고희준(57세 마조마을), 이현석(54세 마조마을), 박기영(54세 무거마을) 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함가동마을에 정착해 '건달농부'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건달처럼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마을주민들과 회의를 열고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귀농인-원주민간 공동 특화작목 육성, 지역 특화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했다.

지역 내 신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아 지난해 3월 1만2,000㎡ 규모의 공동경작지에 원주민들과 함께 초당 옥수수와 고추를 심었다.

함께 힘을 모아 팥 흙더 농사를 지은 결과 총매출 7,500만원을 올렸다.

지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순수익 4,000만원을 거뒀다. 수익으로 보면 네 명의 밭이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귀농인과 원주민이 화합해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공동 경작을 시작으로 건달 농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운장산 자락에 자생하는 각종 산야초 및 임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알막산'이라는 농협회사법인을 만든 것. 알막산은 '알고 먹는 산 약초'란 말을 줄여서 만든 고유명사다.

이들은 최근 알막산 축제도 열었다. 회원과 지역주민, 방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제에는 농이·송이·표고·싸리버섯, 들깨, 도라지, 우엉, 연근, 인삼, 더덕, 배추, 무 등 지역 자생 산야초이자 식재료 30여가지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동경작을 통한 귀농인들의 빠른 정착과 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확보한 플랫폼형 융복합 사업 추진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농기센터, 선발 방울토마토 품종 농가 적용 생산

진안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식)는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선발한 지역 적응 방울토마토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본격 생산하고 있다.

올해 선발한 품종은 노랑색(플라만티토)과 빨강(대장급) 방울토마토로 기술센터 스마트온실에서 2년간 재배해 토질투과와 주민 대상 직거래 판매를 통해 우수 품종으로 선발했다. 이 품종은 수량성이 우수하면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종이다.

마령면의 시범농가는 지난 8월 20일에 정식해 10월 중순부터 진안로컬푸드에 출하하고 있으며, 기존 빨강 토마토에 노랑 토마토를 더해 소비자의

눈과 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염분살포와 관주처리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클로렐라는 토마토 정식 후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잎곰팡이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잎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어 열매를 크게, 당도와 경도를 높게 하여 맛있는 토마토로 키워준다.

고정식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온실을 연중 개방하여 농가에서 딸기와 토마토 현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다"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농기센터, 트리티케일 재배 확대로 사료비 절감

장수농업기술센터가 조사료 자급을 향상을 통한 사료비 절감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동계 사료작물로 트리티케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작성이 좋아하는 밀의 품질과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겨울 사료작물 중 수량이 가장 많고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며, 단백질

함량과 가스화양분함량(TDN)이 높아 사료가치가 우수하다.

장수군은 지역 생산-소비(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도부터 자체생산 트리티케일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8년부터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전북대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트리티케일 한우 급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소방서, 소방유물 수집·기증 운동 추진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28일 2024년 개관될 국내 최초 '국립소방박물관'의 전시 운영 및 소방의 역사적 자료 보존·연구를 위한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은 소방관련 자료 및 유물을 찾아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장가능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수집 및 기증대상은 소방의 역사, 사건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 전시·연구·교육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서적·사진·그림·물품·의복 등 출처가 분명한 유물 및 자료이다.

참여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 기증운동'을 클릭하여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하면 된다.

소방유물 기증자 예우 및 특전으로는 ▲기증증서 발급 및 감사패 수여, ▲각종 중요 행사, 전시 개막 시 초청, ▲명예의 전당에 통한 기증자 명단 수록 등이 있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방 유물을 보관하거나 알고 있는 분들은 국립소방박물관의 전시 운영 및 역사적 자료 보존·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길거리 난타공연 펼쳐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8일 진안문화의집 앞에서 진안군 생활문화회 소속인 느티나무 앙상블과 함께 길거리 난타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은 올 한해 음악치료 시간을 통해 조금씩 배운 난타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사례관리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다양한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